

똥과 오줌에서 일어나는 음욕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32)

애욕을 끊고 출가한 선택 거사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사람에게는 일곱 개의 장(臟)이 있다. 첫째는 풍장(風臟)이고, 둘째는 생장(生臟)이며, 셋째는 숙장(熟臟)이고 넷째는 냉장(冷臟)이며, 다섯째는 열장(熱臟)이고 여섯째는 견장(見臟)이며, 일곱째는 욕장(欲臟)이다. 이 여러 장 가운데에서 욕장이 가장 견고하니, 눈물과 침, 가래와 고름과 피, 힘줄과 뼈, 가죽과 살, 그리고 폐와 간 등의 오장 및 장과 위에 있는 똥과 오줌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다.”
 그때 회상 안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이름이 묘색인 아내가 있었으니, 열골 생김새가 단정하고 예쁘며 자태가 깨끗하여 눈에 확 띄었다. 선택은 아내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여 항상 번뇌가 들끓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음욕의 마음이 똥과 오줌에서 일어난단 말씀입니까? 제 아내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더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神通력으로 묘색으로 변하여 대중 앞으로 들어왔다. 부인을 본 선택이 물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여기에 왔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선택은 곧장 아내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 위에 앉혔다. 부처님께서神通의 힘으로 부인으로 하여금 똥을 싸서 그의 옷을 더럽혀서 했다. 선택은 구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코를 막고 좌우를 돌아보았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뒤에 앉아 있던 발란타가 견디다 못해 선택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코를 막고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요?”
 “구린내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력을 써서 발란타와 여러 대중이 묘색이 선택의 옷을 더럽히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발란타가 선택에게 말했다.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아내가 구린내를 피우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몸에 더러운 것이라곤 없습니다.”
 그리고는 발란타에게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한테 이 구린내가 나는 것 같소.”
 발란타는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을 이제 똥 거사라고 불러야겠소. 당신은 그렇게 똥질을 하고서도 남을 비방하려는 것이요?”
 발란타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똥거사를 여기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는 선택의 손을 끌어 대중 밖으로 나가게 하자, 선택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내 무릎 위에 앉게 했는데, 이러한 법이 어디 있소?”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똥주머니를 가까이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선택은 옷에 묻은 똥을 털어 버리려다가 오히려 몸까지 더러워지자 발란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발란타가 말했다.
 “이 똥은 당신 몸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쳤소. 이것은 당신 몫이니, 만약 벗어나고 싶다면 곧 그것을 멀리 해야 하오. 곧 당신의 아내를 멀리해야 하고.”
 선택은 아내를 돌려보낸 뒤 말했다.
 “나는 이제 허물 많고 오물로 가득한 아내의 몸을 확실하게 보았기에, 여인의 몸에 마음이 가질

로 나아가 결식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본가에 닿았다. 이때 아내 묘색이 머리를 쥐고 법복을 입은 남편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저를 버리고 꼭 사문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선택이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때 그렇게 나의 옷 위에다 똥을 싸서 내 몸을 더럽혀야 했소?”
 묘색이 대답했다.
 “당신은 비구가 되고서도 그렇게 사람을 헐뜯어야 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집으로 시집 와서 아직 바깥문도 보지 못했거늘 허물며 부처님 회상에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약마가 선택에게 말했다.
 “그대가 그때 본 묘색은 애초부터 묘색이 아니



삽화·강병호

었습니다.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 싶습니다.”
 발란타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몸에 구린내가 그렇게 나니, 향을 바르든 해도 한 해는 지나야 되겠소. 그런 뒤에라야 혹시 출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선택이 대답했다.
 “제가 만약 향을 바르고 한 해를 보낸다면, 혹은 몸이 죽게 되거나 혹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출가하여 도를 구할 인연이 무너집니다. 지금 만약 허락하시어 출가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승방의 정사에 머물지 않고 아란야(阿蘭若)에서 결식하고 누더기를 입고 고요한 곳에 혼자 있을 것이니, 구린내를 풍기지 않을 것이요.”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잘 왔다. 너는 사문이 되어 범행을 닦도록 해라.”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괴로움(苦), 쌓임(瞋), 사라짐(盡), 도(道)를 설법하시자, 깨끗한 법눈을 얻고 수다원이 되었다. 또 거들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아라한을 얻었다. 다음날, 선택은 왕사성으

로 갔고, 그것은 변신한 가짜 묘색이었소. 그러니 이제는 돌아와 5욕을 마음대로 즐겨도 될 것이요. 사문 구담이 당신을 속였을 뿐이므로 당신의 지금이 상황은 거짓이요. 당신은 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담 사문은 언제나神通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출가하도록 해왔습니다. 당신도 속은 겁니다.”
 선택은 참된 법을 증득했기에 이내 이것은 약마임을 깨닫고 말했다.
 “약마야, 너도 가짜 약마일 것이요, 이 묘색 부인도 가짜이니 모두가 다 가짜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병든 눈에 비치는 허깨비와 같다.”
 그때 묘색은 이 법을 듣고 바로 깨끗한 법눈을 얻었다. 부처님법 안에서 두려움 없는 법을 얻고는 선택에게 말했다.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범행을 닦으시다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저 역시 그 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겠습니다.” (《화수경》 제6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모든 것이 법문

모래의 무정법문

외손녀, 규연이가 큰이모를 따라 부산에 왔다.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규연이는 오래 전부터 외할머니네 와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연휴를 이용해 오게 됐다. 나도 그랬지만 어렸을 적에는 친척 집에 놀러가는 것이 설레고 재미나는 일이다. 커서는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겠지만 어릴 적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처음 오는 길이고 나는 규연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기차에서 내린 규연이가 달려와 와락 안겼다. 기차 타고 왔다고 자랑부터 했다.
 첫 날은 송정 바다와 해운대 바다를 구경시키고 점심도 바닷가에서 하기로 했다. 주말이어서 해운대 가는 길이 유난히도 막혔다. 평소 30분이면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한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다.
 마침 해운대에서는 세계모래 조각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모래로 만든 갖가지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해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부산에 살면서도 처음 보게 됐는데, 모래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 가수 사이의 모습까지 해운대 해변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규연이는 신기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나는 규연이와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 신기했다. 그 작은 모래알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모래 한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많은 모래알이 뭉치면 그때부터 한 알의 모래알이 아닌 것이다. ‘한 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알’들이 뭉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래사장의 모래 조각을 보며 ‘가족’을 떠올렸다. 또 한 나라의 ‘국민’도 떠올랐다. 가족이 모여 한 나라를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모여 지구촌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서 가족은 각기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면 더 많은 의미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모래알이 하나의 모래알이 아닌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부산 나들이를 한 손주 덕분에 무정법문을 들었다. 그러니 어린 손주도 가족의 시작이고, 더 큰 의미를 부르는 존재

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의 소중한

요즘 TV의 ‘천기누설’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그날 이야기는 약이 되는 풀과 나무 등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 약이 아닌 풀이 없고 약이 아닌 나무가 없었다. 자연은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다. 어떤 나무는 잎이며 뿌리가 무서운 암을 고치기도 했다. 심지어는 병원의 처방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병을 고치기까지 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약초들이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가 평소 쉽게 볼 수 있는 풀과 나무도 있었다.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발아래 밟히는 풀이라고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존재들로부터의 도움이 있기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없이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자연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자연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너’, ‘나’가 없이 ‘경’, ‘중’이 따로 없이 고민하고 행진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을 우리 몸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한 행동들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강물이 더러워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꽃과 풀을 키우는 벌레들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물고기를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나의 존재가 전체의 시작

세상만물 모두 존재 이유 있어

어찌 사람만이 정일까?

그날은 기쁘기도 하고 섬섬하게도 한 날이었다. 10여 년 동안 우리가족의 발이 되어준 차를 새 차로 바꾸게 되었다. 그 차가 가장 많이 다닌 곳은 다름 아닌 절이었고, 우리 가족 외에도 많은 도반들이 함께 타고 다녔다. 그날 마지막으로 통도사를 다녀왔다. 그 동안 한 번도 사진에 담아보지 않았던 차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차안을 치우면서 마음 한편 미안하고 참 고맙다고 쓰다듬기도 했다.
 그리고 새 차가 도착했고, 10년 넘게 함께 했던 차와는 이별을 했다. 멀어지는 옛 차를 바라보며 가족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다. 대상이 무엇이건 이별은 슬픈 것이었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잘 해주어야 할 일이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기 때문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 [후원참여]**
- 
[벽돌 한장]
10,000원
- 
[책상·의자]
50,000원
- 
[땅 한평]
100,000원
- 
[식수대]
300,000원
- 
[컴퓨터]
1,000,000원
- 
[교실 한동]
10,000,000원
- 
[법당(10명)]
50,000,000원